

‘공수 총체적 난국’, 악천후 속 석가장에 0 대 2 원정패

— 연변팀 4 연속 원정 끝에 드디어 홈 컴백... 안방이 답일까



4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 석가장시 유동국제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4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악천후 속에서 석가장공부팀(이하 ‘석가장팀’)에 0대 2로 패했다.

이날 연변팀은 U-21 선수 리성민에게 골문을 맡기고 33번 호재겸, 15번 서계조, 3번 왕봉, 17번 박세호로 수비라인을 꾸렸으며 중원에는 6번 리강, 31번 천창걸, 5번 도밍고스, 20번 김태연을 배치했다. 그리고 공격선에 30번 황진비와 10번 포부스를 투입으로 내세운 4-4-2 진영을 구축했다.

홈인 석가장팀도 똑같은 4-4-2 진영을 꺼내들었다. 키퍼에 22번 림상을 내보내고 36번 양운, 33번 단크렐, 19번 유환, 14번 마중중으로 수비라인을 세웠으며 중원에 39번

서준지, 27번 고힘택, 10번 안기비, 8번 허싸이를 대기시키고 공격선에는 11번 주해위와 9번 올라위를 전방 배치해 맞섰다.

선발 출전 선수들의 평균년령을 보면 연변팀이 28.5세로 석가장팀의 31.2세보다 젊었는데 이기형 감독은 선수 기용에서 변화를 보인 반면 석가장팀의 장휘 감독은 큰 변화를 두지 않았다.

경기는 차가운 날씨의 세찬 바람 속에서 시작되었다. 석가장팀은 경기 시작부터 현장을 찾은 7천여명 축구팬들의 응원 속에서 승풍을 타고 공격전을 펼쳤으며 전장을 연변팀 진영 안으로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가했다.

3분경, 중앙선 부근에서 얻은 한차례 프리킥 기회를 리용하여 석가장팀의 류환이 먼거리 슛을 날렸는데 공이 리성민의 십자관을 넘어 골문 사각에 박혔다. 0대 1, 너무 빨리 골

을 허락하고 말았다.

한풀 뉘진 연변팀은 점차 경기 절정에 적응하면서 추격전에 나섰다 비교적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하여 진영을 상대 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기회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기 13분경에 재차 실점이 나올 줄이야! 석가장팀이 조직한 한차례 반격 기회에 10번 안기비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연변팀은 0대 2로 점수 차를 벌렸다.

두 실점 모두 너무 일찍 나온 터라 연변팀은 조급 정서가 생기고 패스 배합에서 실수가 생기면서 상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연변팀의 짧고 빠른 패스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석가장팀이 짧고 빠른 패스로 연변팀을 궁지로 몰아가는 듯했다.

20분경 도밍구스가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드러나고 18번 로용개저

가 교체 출전하였다. 석가장팀도 28분경 허싸이를 내리고 류자명을 올렸다. 악천후 속에서 쌍방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컸는데 바람을 안고 싸우는 연변팀 선수들이 더욱 힘들었다.

37분경, 연변팀은 한차례 반격 기회에 절호의 기회를 창조했지만 황진비가 아쉽게 놓쳤다. 전반전 경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연변팀이 감각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듯했으나 마지막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간단한 패스에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진 가운데 김태연이 올린 크로스가 포부스를 찾았으나 후자가 공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전반전은 0대 2로 결속되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연변팀은 주동적인 출격 모드로 전환했다. 압박 축구를 시도하며 상대 진영으로 전장을 옮겨가는 변화를 보였으나 유효한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기 53분경, 연변팀은 리금우로 천창걸을 교체하여 출전시켰다.

경기를 보면 연변팀은 항상 반박자 늦은 패스로 상대에게 공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혼란스런 느낌을 자주 주었다.

69분경 호재겸이 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연변팀이 받은 세번째 옐로카드였다. 72분경, 이기형 감독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포부스를 내리고 음바를 출전시켰다.

나머지 시간 동안 쌍방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으나 골문은 꼭 닫힌 채 열릴 줄 몰랐고 경기 성적은 0대 2로 형광판에 굳어졌다.

유효 공격을 조직하지 못하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연변팀에 해결할 숙제로 남았다.

한편 연변팀은 오는 22일(화요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대련군성팀을 맞아 첫 홈장전을 펼치게 된다.

경기후 | 드디어 홈장! 서계조 “우리의 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4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 석가장시 유동국제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4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시즌 개막후 패배 전적 없이 꾸준히 상승세중인 석가장공부와 원정에서 만나 0대 2로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특히 이날 연변팀은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혹평을 들으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수비라인의 세계조선수가 취재를 받았다.

“런속적인 원정경기는 사실 부담이 크다. 이번 경기에서도 두꼐를 먼저 허용했지만 그후 연변팀은 공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걸 특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원인



▲ 인터뷰 화면 캡처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서계조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만회골, 나아가 역전골을 뽑으려는 생각이 컸지만 기회를 잘 잡지 못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돌아가면 다음 경기가 홈장인데 우리의 홈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을 드러냈다. /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 ‘2연패 수렁’ 이기형 감독 “목전의 국면 하루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경기 초반에 나온 실점으로 인해 우리 선수들이 혼란에 빠졌고 조급 정서가 생기면서 패배를 초래했다.”고 이날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그러나 선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운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목전 팀은 성적면에서 곤란에 직면했는데 돌아간 후 총화를 잘해 현재의 국면을 하루빨리 타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공식계정

현지건·박도우 활약, 장춘아태 원정서 시즌 첫 승리!

- ▶ 임대생활 끝, 현지건 슈퍼리그 안착
- ▶ 올 시즌 이적 박도우 주전자리 확보



▲ 선발 출전해 팀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한 현지건(앞줄 왼쪽 두번째)과 박도우(앞줄 오른쪽 두번째) 선수

11일, 2025 중국 슈퍼리그 제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장춘아태팀은 매주객가팀을 3대 1로 제압하며 시즌 첫 승리를 장식했다. 이번 승리로 개막 이후 1무 4패의 부진을 떨치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승리의 주역은 단연 외적 용병들과 베테랑 공격수 담룡(37세)이었다. 전반 4분경, 이번 시즌 새로 영입된 용병 오모이 후안푸(奥莫伊胡安弗)가 용병 벨리치의 도움을 받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기존의 부진한 골 결정력을 극복하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했다. 베테랑 공격수 담룡은 중거리 슛으로 멋진 추가골을 성공시켜 시즌 4호 골을 기록, 리그 득점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월(徐越) 선수 또한 날카로운 결정력으로 팀의 세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수비진에서는 용병 로시치와 수조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골키퍼 오아가는 전반 종료 직전 연속 선방으로 승리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매주팀은 후반전에 1명이 퇴장당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웠으나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추

가 시간 7분경에 계승반선수의 만회골로 체면 치레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장춘아태에 1대 3으로 패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조선족 선수 현지건(20번)과 박도우(21번)의 활약이 눈부셨다. 두 선수 모두 팀 승리의 주역으로 맹활약하며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왼쪽 왕백으로 출전한 현지건선수는 지난 시즌 갑급리그(2부리그) 연변팀에서의 임대생활 당시 이미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올 시즌 슈퍼리그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그는 정교한 크로스와 측면 돌파를 선보이며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흔들었다.

중원에서 활약한 박도우선수 역시 다년간의 슈퍼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패스와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 공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했다. 이번 시즌 장춘아태로 이적한 후 6라운드중 4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주전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경기후 기자회견에서 장춘팀 감독 사휘는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했으나 장거리 원정과 런속 경기로 인한 체력 소모가 컸다.”며 “부득이하게 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야 했으나 이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숙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시즌 첫 승리를 챙긴 장춘아태는 오는 4월 20일 20시, 원정에서 심수신봉성팀과 격돌하게 된다. / 글 오건기자 / 사진 장춘아태축구구락부

2028 올림픽 탁구종목 금메달 6개로 조정!

북경시간으로 4월 10일 새벽,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탁구 혼합단체종목을 추가하고 동시에 남녀단체종목 대신 남녀복식을 다시 올림픽 탁구경기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때가 되면 로스앤젤레스올림픽 탁구경기는 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및 단체

종목으로 구성되며 총 6개의 금메달이 탄생하게 된다.

탁구 혼합단체종목은 2023년 12월 중국 성도에서 열린 국제탁구련맹 혼합단체 월드컵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혁신적인 경기 방식은 남녀 운동선수를 같은 팀으로 조합하여 성별 평등, 융합 및 팀워크를 강조한다.

국제탁구련맹 회장 페트라 솔린은

국제탁구련맹은 오래동안 혼합단체종목의 잠재력을 굳게 믿어왔다면 “올림픽에 혼합단체종목을 도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력사적인 리징표로 될 것인바 이 운동은 활기차고 포용적인 미래 비전과도 고도로 부합된다.”고 표시했다. 이어 그는 혼합단체종목이 올림픽에 순조롭게 도입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민넷



중국팀, 5대 1 대승으로 선수권대회 우승

8일 열린 2025 연천국제여자탁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2003년생인 나이린 공격수 소자훤이 헤트트릭을 완성하며 중국팀은 타이팀에 5대 1로 대승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개최국인 중국은 지난 5일 펼쳐진 개막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5대 0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당일 진행된 3, 4위전에서 잠비아팀이 우즈베키스탄을 4대 3으로 격파하고 3위를 차지했다. / 신화사